전통한옥의 현대사례

손 승 광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머리말

한옥은 오랜 시간동안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이다. 근대화이후 우리나라의 한옥은 일반주택, 특히 저렴하고 편리함의 표상인 아파트에 밀려 왔다. 그 이유는 자동차접근이 어려운 도로망, 협소한 주택규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주택의 물리적 성능, 새로움을 추구하는 다양성의 한계, 그리고 경제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보급되어 80년대부터 확산된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주거타입은 오히려 아파트가 아니여야 한다는 데에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그 동안 소홀하여온 주택에서의 생태환경, 문화성, 다양성과 독창성에 대한 측면에서 아파트가 가지는 한계와 환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한옥은 기피대상이었던 전근대적인 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주택유형으로서 재평가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한편 한옥은 단순히 주거로서 기능만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문화와 전통을 향유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선조들이 가졌던 문화를 전달하고 담아주는 건축과 장소로서 '지역의 경제발전의 자원으로서 요구가 지역사회의 큰 관심이 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와 시대 변화는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건축을 요구한다. 한옥 입장에서 보자면 전통한옥에 머무르는 수요보다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한옥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한옥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우호적이고, 관심은 많으나 이미 한옥을 원하는 이들은 한옥과 일반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에서 다양한 공간과 건축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가치관과 요구조건이 전통한옥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대한옥 출현이 불가피하다.

2. 전통건축의 활용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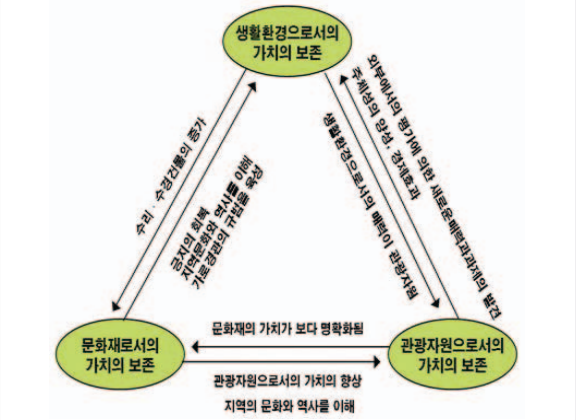
한옥은 오랜 시간동안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으로서 문화적 가치, 생활환경으로서 가치,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양식으로 문화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크다.

1) 생활환경으로서 가치: 한옥은 자연환경을 존중한 건축으로 풍수지리에 의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목조가구조의 건축수법으로 목재, 흙, 돌 등 자연소재로 건축되어진 친환경건축이다. 인공소재, 과밀도시에 건축되는 공업생산제품으로 건축되는 건축,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많은 현대건축에서 한옥은 친환경건축으로 재평가되어 황토집, 한옥, 아파트한옥, 한옥마을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생활환경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과 공간, 주택유형을 체험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한옥은 전

통한옥의 문제, 현대건축공간에서 체험한 상대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난 다음이여서 새로운 시각의 한옥의 탄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2) 문화적 가치 :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담고있는 건축이다. 문화란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 행동, 생활에 잠재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종합체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비젼과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선조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문화를 기억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 한옥은 우리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통째로 담고있어서 우리의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베니스헌장,1964.5)에서는 문화재의 보존, 복원, 발굴에 관한 그림 전통건축과 역사환경의 활용가치합의문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만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평범한 작품에도 적용된다(제1조)'

3)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문화적 특성이 강할수록 이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적 자원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의 성장으로 전통문화, 혹은 타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그리고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주는 대신에 관광객들에게서 입장료, 체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3차 산업을 활성화하려 한다.



▲ [그림 1] 전통건축과 역사환경의 활용가치

3. 전통한옥의 현대적 활용사례

3.1 현대농촌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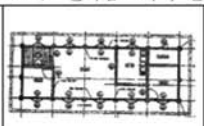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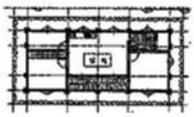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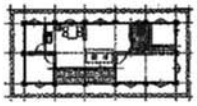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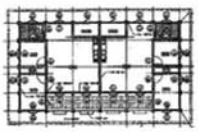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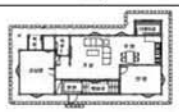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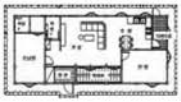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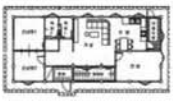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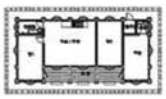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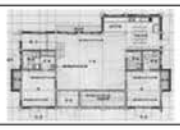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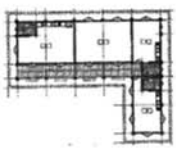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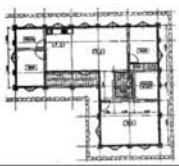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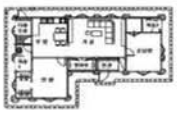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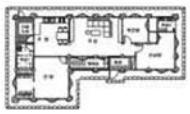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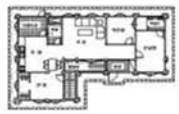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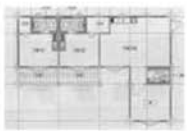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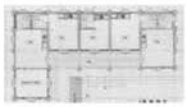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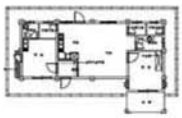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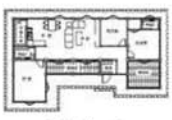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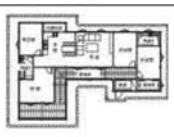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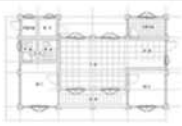
한옥은 농업사회에 형성된 주택이여서 농촌에 건축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옥이 농촌지역에 현대화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으로 도시지역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성화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옥을 보급하고자하는 지역은 전라남도 지역이다. 전통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준한옥설계도'(2005)를 보급하고, 또 한옥보급에 경제적인 부담, 농어촌지역의 마을의 경관이 산만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에 건축되는 한옥건축을 지원하는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를 제정(2007.1)하여 전라남도에서 2,000만원 시·군에서 2,000만원을 보조하고, 3,000만원을 융자함으로서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약960여 호의 한옥을 보급하고 있는 단계이다.

'표준한옥으로 제시된 한옥'은 일반형, 3세대형, 복층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은 64.4-109.6m^2, 3세대형은 140-155.7m^2, 복층형은 2층으로 136.1-236.5m2로 나누었다.[1] 전라남도행복마을에 건축된 한옥은 1차적으로 '전라남도 표준한옥' 을 기준하고, 또 한옥의 기준으로 민박이 가능한 한옥을 지원하는 전라남도의 정책으로 '민박이 가능한 한옥' 현상공모로서(2008.11) 11가지 타입의 한옥평면모델이 개발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로서 한옥의 설계도는 표준한옥(2005)와 민박한옥(2008)이 기준이 되어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지원을 받아 건축주의 주문과 건축사의 설계도면작성으로 건축된다. 건축주는 최근에 조성된 행복마

1) 전라남도(2005), 한옥표준설계도서 참조, 이창재, 최일 ,김정규, 유창균(2010.10), 전라남도 한옥보존마을 및 행복마을한옥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p36 참조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표 1] 한옥평면의 비교 (표준설계도, 민박한옥, 실태조사한옥)

평면형		표준한옥안(2005): 전라남도에서 표준한옥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설계안 민박한옥안(2008): 전라남도에서 민박한옥으로 공모한 설계안의 일부 한옥마을한옥(2007-2011): 전라남도에서 한옥마을에 건축된 한옥				
일자형	한옥 표준 설계 2005					
		16평	16평B	18평 A	20.6평	22+22평
	민박 한옥 설계 (안) 2008					
		87.3m2	90m2	98.3m2		
	한옥 마을 건축 사례					
ㄱ자형	한옥 표준 설계 2005					
			47평A			
	민박 한옥 설계 (안) 2008					
		87.5m2	99m2	103.6m2	108m2	118.8m2
	한옥 마을 건축 사례					
ㄷ자형	한옥 표준 설계 2005					
					47평B	55평A
	민박 한옥 설계 (안) 2008					
					113.4m2	154.8m2
	한옥 마을 한옥 사례					

을 한옥을 답사하고 전통한옥과 최근에 건축된 한옥을 비교하여 건축주 주문이 수정되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으로 건축된 한옥은 표준한옥, 설계도 등과 달리 변형된 부분이 나타나며, 특히 건축후 생활하면서 개조하는 후속작업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현대한옥은 아직도 개발중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옥표준한옥(2005)의 설계방향 :

평민형 개발은 한옥을 단순히 옛 가옥, 또는 감정 가치로서의 인식에 머물지 않고 이를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다. 즉 의미 있는 과거의 주 문화 특성을 찾아내서 이를 자원화 하는 것이다. 향후 지역의 사회구조와 정서에 맞는 주거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의미 있는 전통주거의 개념과 설계 요소들이 거기에 도입된다면 한국주거, 즉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최종 연구목표는 '현대감각에 맞는 기능적인 한옥개발' 에 있다.[2] 다음은

- 전남지방 전통한옥의 안채는 '一' 형과 'ㄱ'형 등 2종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평면개발도 위 2가지 타입을 근 중심으로 한다. 구조는 팔각집에 민도리 양식을 채택한다.
- 정면 주간 거리는 전통한옥보다 300~600mm 정도 넓은 2,700~3,300mm정도로 한다. 전통한옥의 경우처럼 2,400mm~2,700mm정도로 할 경우 특히 방(침실) 평면 구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측면은 3,150~3,300mm이다.(C형 제외) 툇간은 1,200~1,350mm으로 한다.
- 전통한옥에서 툇마루는 입면 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본 설계에서는 본채의 실내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2간만 설치한다.(정면 4간 이상 규모)
- 전통한옥에는 없는 현관을 정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최대로 추구한다.
- 공사비, 본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은 가급적 본채 후의 처마 밑을 이용한다. 이러한 실은 건물이 남향배치일 경우 후면에서 방한벽 역할을 한다.
- 전통한옥에서와 같이 가급적 수납공간을 최대로 확보한다.

*전퇴는 물론 좌.우의 측면퇴 설치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지만, 가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공사비 증액이 뒤따르므로 일단 생략한다.

2) 민박한옥설계 공모안

민박한옥은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한옥으로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체험하고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살림살이집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체류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손님방에 화장실을 부가하도록 하는 한옥이다. 一규자형보다는 ㄱ자형이, ㄱ자형보다는 ㄷ자형이 실내공간의 수와 규모가 더 크게 구성되어진다. 면적기준으로 86-90m^2(A형), 91-95m^2(B형), 96-100m^2(C형), 101-105m^2(D형), 106-110m^2(E형), 111-115m^2(F 형), 116-120m^2(G형), 121m^2(H형)이상 등 8개 타입의 기준 면적에 대하여 제안공모를 받았으며, 표1에 소개된 내용은 그 중의 일부이다.

한옥의 설계안은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과 부엌과 연계되는 아파트형의 공간을 수용하였으며, 전통적인요소로는 목조가구조의 구법을 채택하고, 주택의 전면에는 툇마루와 현관이 있다. 거실(L),식당(D),부엌(K)의 관계에 따라 LDK, L+DK형의선택이 특징이며, 현관과 툇마루가 공존하는 타입으로 전통과 현대생활의 절충형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행복마을 한옥건축

전라남도에는 한옥마을로서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한옥마을(기존마을정비형) 새로이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마을(신규조성형)이 있다. 2007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행복마을이 기존마을정비형이 58곳, 신규조성형이 12곳으로 완료된 한옥이 기존마을 394채, 신규마을 12채, 기존마을에 공사중인 187채와 준비중인 315채가 있다(2010.10월기

2) http://hanok.jeonnam.go.kr/01kr/business/book/develop/, 전라남도, 표준한옥 개발목적 및 개발방향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 [그림 2]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한옥건축의 사례

준). 지역별로는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여수 2, 순천 8, 무안 7, 장흥 5, 여암 화순 4, 담양 강진 보성 각 3, 고흥 영광 해남 함평 장성 여수 2개 마을씩, 나주 광양 각각 1개 마을씩 있다. 신규마을조성형으로는 함평 담양 광양 강진 화순 영암 무안 진도 장성에 각각 1개 마을씩 그리고 나주에 2개 마을이 확정 혹은 준비중이다.[3)]

건축된 한옥은 설계안과 조금 차이가 난다. 최근에 지어진 한옥일수록 민박지원정책이 반영된 한옥으로 건축되어진다. 공통점은 한옥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과 부엌과 연계되는 아파트형의 공간을 수용하였으며, 전통적인요소로는 목조가구조의 구법을 채택하고, 주택의 전면에는 툇마루와 현관이 있다. 거실(L),식당(D),부엌(K)의 관계에 따라 LDK, L+DK형의선택이 특징이며, 현관과 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한옥, 그리고 민박용 한옥으로 설계된 안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툇마루공간이 거실로 편입되어 실내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이 절대적으로 많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너방의 공간구조는 동일하나 대청마루가 거실로 바뀌었다.

(2) 주택의 뒷면에 설계된 창문은 거실의 활용과 가구배치 때문에 창문을 개설하지 않고 막아서 사용하는 주택들이 많아진다.

(3) 다른 실의 상부를 이용하는 벽장대신에 부속기능을 가진 반침, 벽장이 한옥에 도입되어지고 있다.

(4) 부족한 가사실은 부엌공간후면으로 다용도실과 부속실이 부가되는데, 이 부분의 건축은 지분구조와별개로 돌출된 부분으로 평면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한옥의 고유한 형태와 조형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정책적으로 제지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옥건축 현상은 아직도 전통한옥을 고수하고자 하는 공급자 혹은 전문가들의 시각과 사용자들의 욕구의 차이, 실용성과 전통한옥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전통한옥을 고수하려면, 툇마루의 설치하고 마당에서 각 실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세살문 등의 전통창호를 설치하는 외관이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한옥에서 외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관련이 있다: 1) 일반주택과 아파트에서 일반화되었던 거실과 현관을 도입하게 되면서 툇마루가 사라지는 한옥이 많아졌다. 2) 창호의 기밀성과 단열성을 추구하고 고층아파트에서의 생활과 입식가구를 사용하는 생활방식으로 마당에 면하는 개구부의 크기와 비례가 달라진다.

3.2 도시지역의 한옥

전통한옥이 도시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률은 경제성과 정비례하기 때문

3) 김지민(2010.10), 전라남도행복마을 한옥의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 모색, 제1회 한옥박람회기념세미나, 영암

▲ [그림 3] 도시한옥의 원형과 변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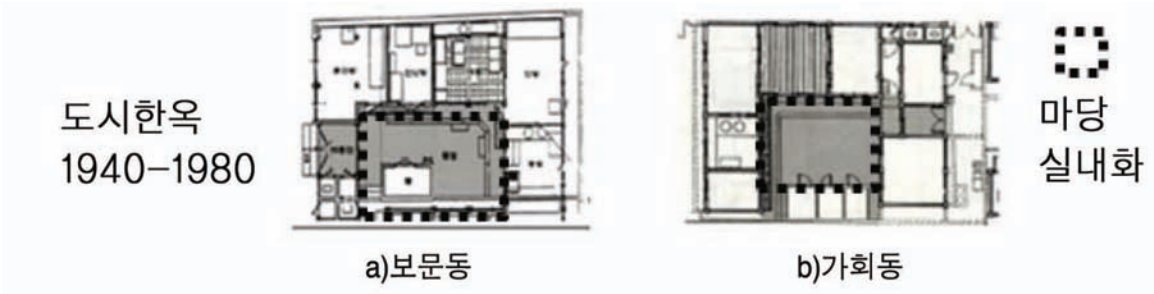
에 저층주택으로 주차,진입, 용적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면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현대한옥으로 신축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다만 이미 지어져 사용되어온 도시한옥이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통하여 그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주택으로서 한옥은 1930년대에는 전통한옥이 1960년대에는 개량한옥으로 대체된다. 개량한옥은 협소한 대지의 활용, 인접하는 주택과의 프라이버시문제, 흙과 시멘트를 사용한 벽돌과 시멘트기와가 주택에 적용되고, 신주택지 조성과 함께 확산되었다. 전통한옥은 건축비가 비싸지만 깊은 처마를 가지고 있고 실내공간은 넓지 않다. 서울 북촌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한옥은 주택과 담장안의 공간으로의 확장, 마루의 온돌화, 툇마루와 대청마루의 실내화, 마당으로의 증축을 통하여 부족한 기능의 용도에 적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60-70년 이전에 건축된 한옥이 현대적 생활과 생활규모에 적합하지 않아서 개조와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거나 용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큰 이유는 건축구조수법, 공간구성, 비례와 스케일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미지와 공간감을 비교적 충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3.3 역사문화경관과 한옥

전통건축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온 독특한 특성은 다른 문화권에서 보면 새로운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원형으로서 가치가 높을수록 문화적 가치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아지므로 원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의 질적인 욕구, 획일화된 초고층아파트에서의 생활로 인한 진부함,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주거욕구,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적 자원이 단순히 옛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자원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한옥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수요가 있다.

이미 서울의 인사동은 한옥지구에 근접한 문화적 특별지구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전주 교동지역 또한 한옥을 정비하고 문화적 체험공간으로서 지역을 정비하여 전통지역으로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한옥을 활용한 농촌주거로서, 관광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전주와 경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전략으로서 한옥조성,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하고, 시범마을조성사업을



▲ [그림 4] 도시한옥(1960s')과 단독주택(1970s')비교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 [그림 5] 이세시의 전통경관의 복원과 활용

▲ [그림 6] 라궁의 배치와 한옥이미지

▲ [그림 7] 전주한옥지구의 테마개발과 정비

2006년부터 시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신도시로 조성중인 행정도시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등과 ' 행정도시시범사업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살고 싶은 한옥마을' 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미에현에 있는 이세시는 지역 발전전략으로서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설정하고 메이지시대까지의 역사환경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우체국 은행 등 공공기관 또한 전통건축물 내부로 기능을 수용하고, 박물관 혹은 기념관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전통건축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난 다음 관광객의 방문자수는 이사업을 벌인 후부터 10년사이에 10배로 늘어났다.

문화적인 호기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통건축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은 도시지역의 전통지역으로의 지정과 관리(전주,경주,북촌), 테마개발을 통한 프로젝트단위의 개발로서 경주의 라궁, 전주의 테마박물관, 영암의 구림마을을 왕인박사의역사적 장소로 개발하려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건축의 문화재로서 가치는 중요한 자산이다. 문화재가 단위건축이나 장소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장소로 존재함으로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으로서 활용을 극대화해 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재와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전통건축의 수요는 크다고 볼 수있으며, 이미 근대적인 건축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도 전통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디자인도 필요하다.

3.4 현대건축과 전통의 복합형

우리 나라의 도시화률이 2012년까지 70%에 이르게 되고 도시지역에서 용적률은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직결된다.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층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층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혹은 조적조 등의 한옥구조가 아닌 건축을 형성하고, 상부층 혹은 건축물의 일부에 한옥을 채택하여 한옥의 집합주택 경관을 획득할 수 있다. 저층부가 목구조방식이 아닌 벽돌조 혹은 콘크리트 및 석조로 건축되고 상층부만 전통한옥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도 역사적 환경을 연출하는 방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건축으로 기단위에 축조된 한옥 이미지만

▲ [그림 8] 한식표현(좌)과 전통건축의 활용가능성(우)

을 전통건축의 원형이라고 협의적으로 받아들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신라시대에 축조된 불국사는 조적조와 목조건축을 결합하여 디자인한 우수한 건축물이다. 전통한옥이라고 생각하는 한옥과는 다른 이미지이고, 이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나라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에 기둥구조 특성상 하층에서 상층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외관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다. 조형적인 변화와 안정성을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체감효과를 의도하는 경우는 궁궐과 불사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현대적 기능을 가진 건축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 도로면에 있는 부분만 전통건축으로 건축하는 유형, 근대건축과 전통건축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그림 9] 한옥+한옥형건축, 나주

왼편의 사진은 역사문화적인 환경에 세워지는 건축물인데 건축물 중에 도로에 면하는 부분은 전통건축으로 하고 안쪽은 일반건축으로 디자인되었다. 기능적인 구성과 경관관리라는 측면에서 현대와 전통 이미지를 절충한 디자인이다.

4. 맺음말

전통건축이 현대건축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한옥의 장점이 무엇이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건축으로 전통건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최근들어서 전통건축으로서 한옥이 재평가되고 있고, 다양한 건축유형과 조건에 대한 부단한 시도와 평가를 거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현대적 출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건축, 과거에 담아둘 존재인가 아니면 현대사회에 새로운 생명체로 다룰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